전기공학교육 소특집을 내면서

이 상 혁
(아주대 공대 제어공학과 교수)

근래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 대학에서의 전기공학분야의 교육수준도 괄목할만한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각 대학에서 나오는 연구논문의 질적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진 사실 하나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기술상의 관점에서 현재 학계가 산업계를 주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므로 대학의 연구활동이 산업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전기공학분야의 교육내용을 보면 과거에 비하여 교육분야의 폭이 대폭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의 상대적 중요도도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전기 및 전자분야의 독립적 교육내용이 점차 융합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반대로 교육구조면에서는 전공의 세분화현상이라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누구나 좁은 의미에서의 전기, 전자 및 전산공학등의 상호관련된 분야를 폭넓게 교육함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국내대학에서는 전기, 전자, 전산, 정보, 제어등으로 계속 전공의 세분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교육적 관점에서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전기공학의 교육내용과 국내대학의 관련학과 현황등을 본지에 소개함으로서 회원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계속적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고를 써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